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동물학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채식주의자가 되세요.** 절대 채식주의자란, 단지 식료품뿐 아니라 동물에게서 생산된 어떠한 것도 구매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음식, 옷, 신발 등 모든 실생활에서 동물을 희생해서 만들어진 상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 외에 개인적인 행동이나 선택에서도 우리의 윤리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절대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사회활동이나 법을 바꾸라고 종용하는것이 아닌 단지 '동물의 권리'를 이해하고 동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물을 희생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채식주의자는 **비폭력성을 원칙으로** 하고,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나 동등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절대 채식주의자는 동물들의 권리를 대변할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채식주의자로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우리의 취지를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지구에 우리와 공존하는 사랑스런 동물들을 지켜줄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개개인이 절대 채식주의의 취지를 이해하고, 절대 채식주의를 실천하도록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먹는것도 아닌데, 동물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고기를 먹는 것과, 유제품을 먹는 것, 그리고 동물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기만이 도축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달걀과 우유 또한 고기를 생산하는 곳과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 결론적으로 인간들이 동물에게 행하는 잔인한 행위일 뿐입니다.

**우유 한 잔, 아이스크림 한 스푼, 달걀 한 개에도 그들의 고통과 죽음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고기를 먹는 것이 유제품이나 동물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윤리적으로 다르다는 견해는 큰 소를 도축할 때와 작은 소를 도축할 때의 차이를 따지는 것과 같은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99%의 사람들이, 동물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동물들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천은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동물들에게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동물에 대한 학살하고 멈추고, 우리와 함께 동물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인간적인' 행동에 동참하세요.

**지금 절대채식주의자 가 되세요. 정말 쉬운 결심이며, 선행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AbolitionistApproach.com](http://www.AbolitionistApproach.com)

© 2008 Gary L. Francione & Anna E. Charlton.  
Distribution by other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does not necessarily indicate approval by the authors of any views other than those contained herein that may be expressed by thos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동물 권리**  
**페지론적 접근**  
WWW.ABOLITIONISTAPPROACH.COM

**동물 : 분열된 윤리**

우리는 동물들이 받고 있는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동물의 고통과 살육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인간에게 편리하고 즐거움과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는 관습적으로 행해진 모든 형태의 동물 학대를 포함합니다. 동물의 생명을 이용하여 이익, 즐거움, 편리함 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식생활에 제공되기 위해 살육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에 의하면 인류가 연간 약 53억 마리-말 그대로 53,000,000,000-의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물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동물이 도축된 수만을 산정한 수치입니다.

1억 4천 5백만.....매일  
6백만.....매 시간당  
10만.....매분당  
1천6백8십.....매초당

또한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반세기안에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이유로 동물을 먹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식용 동물이 인간에게 해롭다는 증거도 최근 점차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세기동안 관습적으로 식용으로 동물을 도축한 것을 '자연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했던 행위들이 모두 윤리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인류는 과거 인종 차별이나 성차별도 오랫동안 행해 왔으나, 그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식용 동물이 환경 생태학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연구 결과에서 축산업은 환경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축산업 때문에 생겨난 비닐 하우스가 발산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피해는 자가용, 트럭과 같은 운송수단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가축을 키우기 위해 사용되는 땅은 전 지구의 30%이며, 이중 33%는 농작물을 경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땅입니다.

축산업은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삼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층에 심각한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지형변경과 목초지에 지나치게 많은 동물들을 수용하는 일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지구상의 물 부족 현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대량의 물이 가축을 먹이기 위해 필요하며, 방목된 동물들은 물의 순환을 방해하여 심각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식용 동물은 스스로 생산하는 양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1kg의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6 kg의 단백질을 인간이 제공하는 사료나 곡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려면 10,000리터의 물이 필요하지만, 1kg의 밀을 생산하려면 9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식용동물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다는 곡식에서 얻어내는 것이 보다 현명합니다. 식용 동물의 사육은 인간에게 보다 심각한 자원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년간530억마리의 동물을 죽이는 이유는 단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더 많은 물을 소비하고 환경오염만 부추길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살육을 절대로 인정하면 안됩니다.**

동물 살육은 우리의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완용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고 귀여운 토끼를 생각해보세요. 동물들은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동반자입니다. 가족 같았던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았나요? 다른 동물들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다르지 않은, 나의 애완동물과 똑같은 동물들입니다.

**동물을 위한 대책**

우리는 동물을 어떠한 행위로든 인간의 '필요'에 의해 도축되는 것을 반대하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동물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복지법에 따르면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이러한 법은 동물이 경제활동을 위한 자선이 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집니다.** 경제적 상품이 되는 순간, 인간은 이것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안에서 동물들은 차나 가구와 같은 인간의 소유물일뿐,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존중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적 이윤을 위해 행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투자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법적으로 산업 기반을 조율하지 않을까요?**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동물 보호 기구들은 동물 복지법을 통해 산업 기반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들의 슬로건은 '인간적인'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더 넓은 사육장 또는 고통없는 도축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대책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넓은 사육장에서 소량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입니다. 또한 닭장에서 키우던 방목을 하던 한 알의 달걀을 생산하기 위한 닭의 고통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동물 복지법은 동물에서 생산된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데 전혀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동물 복지법은 시행된 지 200여년이 되어가지만, **인류 역사에 지금과 같이 동물을 살육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사육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동물 살육에 대해 보다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동물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만을 줄이는 행위로, 더 많은 동물의 희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물 복지법에서 간과하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인간적인' 사육 환경만 제공하면 생활의 모든 재료에 동물들을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동물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동물학대를 인지하고, 동물이 인간의 재산으로 악용되어 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